

외국인 노동자들의 싱싱한 삶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House of Shalom Newsletter AM HAARES

통권 2호 2001/가을호

특집

외국인노동자와 산업재해



한국

에 성공회(聖公會)가 소개된 것은 1880년 중국에서 파송한 중국 선교사가 최초이고 1890년 9월 29일 영국이 한국 선교를 결정하고 고요한(존 코프, 1829-96) 주교를 한국 선교의 책임자로 파송(派送)하면서 본격적 선교가 시작되었다.

성공회(聖公會), 100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모습은 다른 교단에 비해 결실이 적다.

선교적 결실이 적고, 교세가 작은 이유를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많이 말들하고 적극적 선교, 교회 개척 등을 줄기차게 노력해 보지만 성공회 전통 남주나, 잘 되질 않는다.

성공회(聖公會), 잘 되질 않는 이유는 성공회이기 때문이다. 누가 뺏어도 싸우질 않고, 때려도, 매 맞아도 울지 않고 바보처럼 하느님과 지고지순(至高至純)한 사랑을 나누어 왔기 때문이다.

10년을 넘게 미사를 봉헌하던 필리핀 공동체가 두 동강이 났다. 1990년부터 성생마을 한 구석에서 시작된 필리핀 예배 공동체는 성당을 신축하고 성공회 필리핀 신부, 성공회 한국 신부, 천주교 필리핀 신부 등이 번갈아 가며 더욱 활기를 띠며 영세(領洗)나 혼배성사(婚配聖事) 때는 300명이 모여 기도를 했고, 평균적으로 100명 가까운 인원이 하느님께 미사를 드려 왔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천주교가 근처에-사실 근처라기는 하지만 걸어서 갈 수 없는 먼 곳- 생기면서 그 잘나빠지게 와서 배풀던 미사를 성공회 성당에서는 금지 한다는 등 어찌고저찌고 말도 하기 싫은 이유로 공동체가 어정쩡한 모습으로 결단 나며 며칠을 지내고 있다.

「성공회 서울교구 남양주 교회... 이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나는 이런 확신을



천주교 유감

이 정 호(콜롬바) 신부

...근처에 천주교가 생기면서 그 잘나빠지게 와서 배풀던 미사를 성공회 성당에서는 금지 한다는 등 어찌고저찌고 말도 하기 싫은 이유로 공동체가 어정쩡한 모습으로 결단 나며 몇 일을 지내고 있다...

갖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한다. 그 하느님의 넓으심을 부족한 사제가 흐트러뜨리고 싶지는 않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기타 등등. 우리 하느님은 그들을 모두 끌어 안았다. 누구도 이를 부인 하거나 이곳에서 종교문제 따위를 운운하지 않는 곳이 살롬의 집이다. 목사도, 신부도, 스님도, 이맘도, 모두 하늘 향해 열려 있는 곳이 살롬의 집인데 어떤 누가 이렇게 비참하고도 비열한 짓을 하며 돌아올 일요일 주님의 날에 번민하게 만드는가?

이 참에 정신 좀 차리고 성공회 신자가 아닌 외국인 포함 국내인 구박도 좀 하고 도움주기도 거부해볼까?

「성공회의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0년 외국인 노동자 사목이 전개되어 왔다면 지금 살롬의 집은 살롬의 집이 아니라 아집(我執)과 위선이 가득찬 교회, 성당이었을 것이다.

그래, 어차피 100년도 넘게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용 쓴다고 달라질까? 그냥 이렇게 가자. 오른 뺨 돌려대고, 10리도 가주고, 있는 것 다 벗어 주고... 왜? 우리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어쩐지 10명이 채 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하느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안스럽다. 그렇지만 성공회 주교가 축성한 성유(聖油)를 빌려가며, 머뭇거리는 나에게 천주교 한 신부의 용기 어린 덕담에서 “파더, 저위에 하느님 하나, 팬찮아...” 그리고 ‘두어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그 기구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또다시 부러져 질 수도 없는 주먹을 살포시 쥐어본다.

사랑하는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그대들이 머무는 이 성생공단과 살롬의 집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기꺼이 당신들을 사랑하며 하느님의 운신의 폭을 넓혀 갈 것입니다.

칼럼

천주교(天主敎) 유감

2 평균적으로 100명 가까운 인원이 하느님께 미사를 드려 왔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천주교가 근처에-사실 근처 라기는 하지만 걸어서 갈 수 없는 먼 곳- 생기면서 그 잘나 빠지게 와서 베풀던 미사를 성공회 성당에서는 금지 한다는 등 ...

오늘의 이주노동자

4 ... 이것은 단순히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과거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것이다. 우리의 과거 아픔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떠돌이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과거 불과 10여년 전의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상담수첩

5 “제발 좀 때리지 마세요!”

자원활동가 컬럼

살롬의 집,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다른 문화와의 만남

10 살롬의 집,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국에서 어찌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인 그들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아니 어찌면 그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친구 자원 봉사자

12 현재 나는 단지 이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주어진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다. 현실이 변하는...

14 살롬의 집 소식

기획특집



이주 노동자들의 긴 한숨(2)

산 업 재 해

6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미등록 노동자라 하여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를 꺼리거나 구령이 담 넘어 가듯 슬쩍 넘어가려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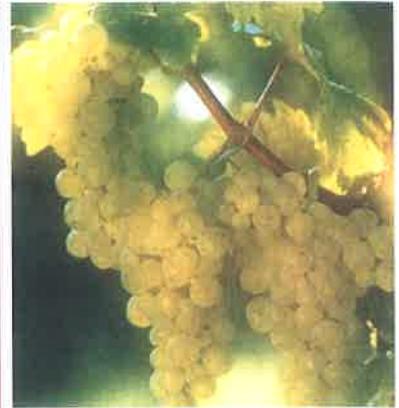
의 료 공 제 조 합

8 ...하지만 무료 진료소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강도 높은 노동조건과 열악한 위생 및 영양 상태 등의 생활환경의 요인에 의해 일반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직된 것이 “외국인 의료 공제조합”의 결성이었다.

송출국 탐방

방글라데시

16 방글라데시 주민의 83%가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도처에 이슬람 사원이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또 벼농사 중심의...



편집자로부터...

가을이 깊었습니다. 어제가 여름이었던 것 같았는데 세월의 흐름이 급류와 같습니다.

들녘에는 농부들의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수고한 결실을 얻는 가을은 정말 즐겁고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 계절에 우리의 수확은 얼마인가 썸을 해보지만 그렇게 훌쩍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아쉬움과 욕심이겠지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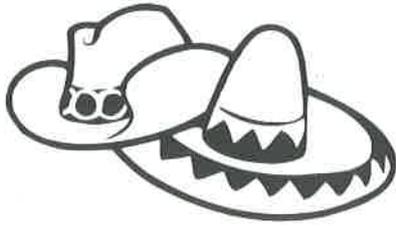
다만, 그 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저희 살롬의 집을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릴 뿐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원과 성원을 기대해봅니다.

이 땅의 사람들

통권2권 2001/가을호

발행,편집인:이정호
편집: 살롬의 집 후원회
발행소: 외국인노동자 살롬의 집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녹촌리 산33-9
전화:031-594-5821
전송:031-595-9775

1년전 남미 칠레...



살롬의 집/
최준기(베드로) 신부

1년 전 남미 칠레...

헤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다른 곳보다 싸고 맛이 좋아 세 번을 계속 찾게 되었다. 세 번째 식사를 하던 때 식당의 젊은 주인이 스페니쉬로 말을 건다.

“일본?”

아니라고 고개를 젓고 맞춰보라고 해본다. 일반적으로 중국이나고 묻는 것이 남미에서의 일상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서툰 발음으로 ‘한국사람’이라고 한국말을 한다.

그 순간 나의 얼굴은 굳어져 버렸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진다.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기 보다는 ‘다친 데는 없었는지’ 혹시 월급은 제대로 받고 돌아 왔는지, 그리고 손가락의 숫자도 조심스레 세어 본다.

1년이 지난 오늘, 살롬의 집...

한 검은 피부의 친구가 찾아 온다. 목적은 밀린 월급을 받기 위

해서...

그와 대화를 해 본다. 그가 본국을 떠날 때 이미 600만원을 브로커에 주고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 왔다. 한 달에 30만원의 월급이 적어 도망 나와 불법 노동자가 되었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의외의 대답을 한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욕을 하고 때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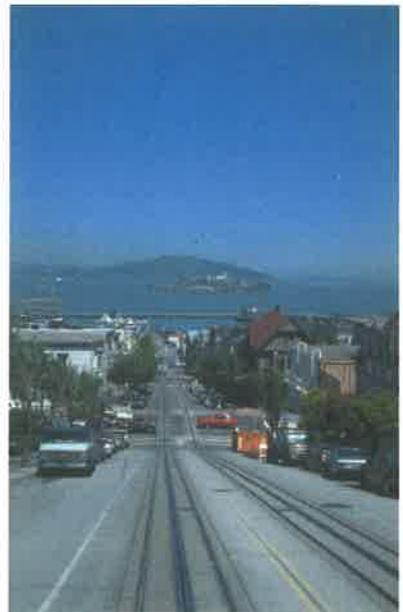
여행은 새로운 장소나 건물에 대한 호기심 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여행의 진정한 매력을 주게 된다. 그러기에 유럽의 도시보다 눈에 보이는 새로움이 없는 인도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칠레의 한 작은 도시에서 나의 고국이자 그 친구가 한 때 시간을 보낸 공통의 장소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왜? 나는 그들에게 빛진 자처럼 부끄러움을 가져야 하는가는 오늘날 30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들어 난다.

경제적 논리나 법적인 한계를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일본에서 60만이 넘는 우리나라 사람의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래도 한번쯤은 6-70년대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 그리고 미국에서의 한국인 불법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자.

구약에서는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압제에서 건지신 하느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다. 이것은 단순히 하느님의 자량이 아니라 우리에게 과거를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과거 아픔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떠돌이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과거 불과 10여년 전의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오늘도 나이지리아의 검은 피부 친구들은 이태원을 찾을 것이다 자신을 미 8군이라고 남들을 속여 가면서.... 인격을 보지 않고 국적과 피부로 차별하는 우리에게 그 거짓말로 우리의 허위에 비웃음을 던질 것이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살롬의 집/
김 형 배



◎ 사내 폭행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메루(32)는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산업 나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이다.

9월 11일 낮, 이마에 거즈를 붙이고, 한 손에는 피 묻은 셔츠를 들고 상담소에 찾아 와 왼쪽 무릎과 오른쪽 가슴에 통증이 심하여 움직이는데 고통이 따르다며 상담소에 와서 호소를 하였다

2001. 9. 10. 오전, 공장에서 페인팅 작업을 하던 중 한국인 근로자 오 ○○가 “일을 똑바로 안 했어”라며 쇠파이프 같고리로 여러 번 때렸다. 옆에서 작업을 하던 한국인 동료들이 싸움을 말리니까 다시 또 여러 차례 머리를 때렸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자 싸움을 말리던 한국인 동료들이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치료를 받았다. 아메루는 찢어진 이마를 11바늘을 꿰맸다.

후속조치 :

상담소에서는 위 내용을 취척하고 휴업금 산정 등 여러 가지로 필요할 것 같아 치료를 받은 의원에서 진단서를 발부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진정하기 전에 전후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했다”고 하면서 책임자를 바꾸어 달라고 하자 여직원이 전화를 받고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연락 주겠다고 했다.

약 2시간 후 권○○상무라고 하면서 “왜 경찰 운운하고 협박하느냐, 외국 놈 새끼들 잘해 주니까 회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일을 상담소에 가서 진정하고 다닌다”고 불평하고 “치료 받은 병원에 와서 진단서 발급 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말라고 했다 “라고 하면서 격앙된 대화가 오고갔다. 또 “그놈들 둘 다 9월 10일자로 해고 처리 했다”라고 하면서 일방적 통보식 대화가 오갔다. 상담소에서는 마석 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 의뢰하였고 다음 날 아침 상담소 담당자와 함께 회사를 방문하여 가해자로부터 사과와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사후 소감 :

공장 내에서 외국인의 위치는 한국인 종업원 아래로 천대받는 분위기이며 특히 사장보다 한국인 중간 간부 및 종업원의 꺾박이 더 문제인 것 같다.

◎ 임금체불

방글라데시인 아리프 (22)는 2000. 09. 10 - 2001. 05. 16일 까지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00기계에서 근무하면서 2001. 03. 11 - 05. 16까지 1,449,000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수령치 못하고 상담소에 탄원하였다. 상담소에서 00기계에 체불임금 1,449,000원을 정구하자 00기계에서 1,667,000원의 금액을 외국인 노동자 아리프에게 명세서를 첨부하여 재 청구하면서 아리프의 청구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었다.

아리프에 대한 청구내역은 회사에서 빌려준 방세와 난방 및 전기료 등 이미 회사에서 지급하였던 것으로 회사의 부담 사항이었으나 서류상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상담소에서는 회사에서 예전에 임금을 지급 할 때 아리프의 월급에서 청구내역서상의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불한 것은 방값 등을 회사에서 지불 할 의사가 확실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체불임금을 상쇄하기 위한 역지가 아닌가 하면서 결국 생활비(쌀값) 부분 200,000원을 제외한 1,2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냉장고, TV 등 소모품이 아닌 것은 그냥 회사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감액대상 아니라고 생각됨.

이주 노동자들의 긴 한숨-(2)

산업재해

살롬의 집 / 박 노 희

올 들어 산업재해 환자가 30.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가운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모두 73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16명에 비해 231.6%나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내국인들에 대한 산업재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그런대로 베풀어지고 있지만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중 많은 이들이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를 당하고서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체포되어 강제 출국 된 이들이 많다.

들어가는 말

88올림픽이후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래의 희망찬 꿈을 안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관광비자, 방문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일을 하였으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 임금을 못 받아도, 일을 하다 다쳐도 보상금은 커녕 치료조차 받을 수가 없었다. 정당하게 노동한 대가의 임금을 못 받고 산재보험법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들은 더 이상 노예 처럼 살수 없다면서 1991년 명동성당에서 몸에 사슬을 묶고 인간임을, 노동자임을 외쳤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불법취업 외국인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이들을 우선 강제 출국 조치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93년 11월 26일 서울 고등법원이 필리핀인 아키노 시바은(26)이 불법

취업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사실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이었다.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앞으로 불법취업 외국인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팔이 잘리고 손가락이 잘려도 신고나 보상요구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것이다. 이후 소송이 잇따르고 외국인 노동자 농성사건이 터지면서 94년 2월 7일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한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산재를 당하고서도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된 이들의 해외 농성과 집단적인 움직임,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의 조짐이 보이면서 94년 9월부터 출국을 당한 이들에게도

소급하여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해외 공관을 통해 접수를 받고 보상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사례를 통해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문제

사례 1

베트남 노동자 홍은 사출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하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장은 홍의 형에게 서류를 내놓으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형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하였다. 홍은 서류를 가지고 상담소를 찾아왔다. 서류의 내용은 입원기간에는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퇴원 후 통원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통원 치료기간동안에는 무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였다. 상담을 받고 회사에 연락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려했으나 미등록 노동자이므로 출국 당할 것을 걱정하여 본인이 않겠다 하여 각서를 받았노라'는 대답이었다. 당장 통원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어떡할 건지 회사에 문의하자 '산재처리는 못하겠다' 고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진정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회사는 비협조적이었다. 이유는 공상처리 시 병원 비와 산재처리 시 병원 비의 차액이 2백만원이 나는데 이것을 홍에게 받을 수 있을 시에만 최초 요양신청서에 회사 날인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에 찾아간 홍을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출입국에 신고하여야 한다면서 출입국으로 끌고 가기도 했다. 겁에 질린 홍은 사무실에 연락하여 사장이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고 전화를 해와 알게 되었다. 또한 홍에게 2백만원을 갚으면 여권을 돌려주겠다며 강제로 압수하기도 하였

다. 이 경우에는 회사는 불법체류노동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치료는 물론 보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알뜰한 술수이다.

사례 2

우즈베키스탄인 샤샤씨는 주물공장에서 쇳물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구멍 난 바가지에서 쇳물이 떨어져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 샤샤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회사의 협상제외에 응하였다. 3백만원에 합의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서 치료를 받기로 했다.

목발을 짚고 공방으로 향하였으나 도저히 아파서 출국을 포기하고 병원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회사가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병원에서는 퇴원할 것을 요구했다. 불안해진 샤샤씨는 회사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샤샤씨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우선 병원에 연락하여 샤샤씨의 치료상태를 문의하였더니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이 썩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치료 후에는 이식수술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산재처리할 것을 요청하자 이미 합의를 했으므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는 것이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에 의뢰하여 처리를 하였다.

치료도 끝나기도 전에 몇 푼주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파렴치한 사업주인 것이다.

만약에 샤샤씨의 경우 착한 택시기사를 만나지 못했으면 낯선 나라에서 어떡했을까. 다행도 치료가 잘되어서 이식 수술한 샤샤씨의 발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사례 3

중국인 원지린은 비오는 날에 공장 지붕에 올라가 일을 하다 떨어졌다. 팔과 머리를 다친 원지린씨는 성 바오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던 중 회사는 비싼 병원비에 정형외과 의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게 했다. 정형외과로 옮긴 원지린씨는 어지럼증과 얼굴마비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치료비의 요구를 받아 병원을 나와버렸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그는 고통을 호소할 수도 없었고 치료비를 걱정하고 있었다. 회사에 연락하여 산재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다시 성 바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결국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맺는 말

많은 산업재해 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접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오늘도 장시간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사고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 사업주는 산재사고 시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한다.

자동안전장치가 설치된 기계에서는 생산량이 목표대로 나오지 않아 수동으로 만들어 놓고 일을 하다가 절단사고를 당하는 경우, 잘못된 기계조작 미숙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잘못으로 이야기되어진다.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방인으로 바라보지 말고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세 부류의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처한 조건과 상황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부류는 해외 현지 투자기업 연수생 노동자들로서 월급이 3만원부터 10만원까지를 받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해외 현지에서 계약을 맺고 연수명목으로 들어와 있기에 현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중점으로서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어 있고, 말 그대로의 노예신세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둘째 부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산업기술 연수생이다. 이들은 지난 95년 1월 9일 명동성당 농성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 비로소 30여만원 정도에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방문이나 관광으로 입국을 해서 불법체류 중이거나 또는 연수생으로서 이탈한 모든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불법취업자인 경우로서 이들은 월급 50-100만원까지의 그래도 가장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같은 공장에서 똑 같은 일을 해도 이런 지경이니 어왕 돈을 벌러 왔기에 이탈을 하여 다른 공장에 가기만 하면 월급이 두 배 이상 뛰어오르니, 합법체류자보다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여야 한다. 법을 지키는 합법체류자에게는 혜택을 주어야 하고 불법체류자에게는 많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는 정 반대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일을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연수생은 최고 1,500만원까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과 회사측의 민사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니 돈을 벌기 위해 온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를 동경하고 어떻게든지 불법체류자가 되고자 애를 쓴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조합

편집실

원봉사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료 진료소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강도 높은 노동조건과 열악한 위생 및 영양 상태 등의 생활환경의 요인에 의해 일반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직된 것이 “외국인 의료공제조합”의 결성이었다.

외국인 의료공제조합을 결성하기까지..

외국인노동자가 살면서 일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임금체불과 의료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인 건강, 질병 등의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언어소통의 어려움, 병원 이용에 대한 지식부족, 한국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장시간의 노동 조건, 병원 이용을 허락치 않는 고용주들의 태도 등이 외국인 노동자의 병원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30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이용을 기피하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기 때문에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비용부담이 한층 더 극대화된다.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면 가볍게 해결될 수 있는 질병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몽골인 B씨는 급성맹장염이었는데 진통제 몇 알을 먹고 참고 참다가 결국은 혼절하여 병

원에 후송되었고, 수술을 했지만 맹장이 파열되고, 복막염이 되어 결국 패혈증으로 하루 만에 사망하였다. 또 스리랑카인 S씨는 작업 중 발등에 부상을 당하였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은 무릎 밑을 절단하였다. 아픈 배를 감싸 쥐고 진통제 몇 알에 의지하여 참을대로 참다가 결국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는 이미 맹장이 터져 복막염을 일으켰고 결국 여러 합병증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6개월을 보낸 G씨 등 의료문제의 해결이 절실했다. 한국에는 병원과 의사들의 수는 많은데 비해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최소한의 응급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종교단체나 대학등에서 자

회원이 되려면

매달 5,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카드(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의료보험카드의 일종)를 발급하여 주며 현재 수도권 지역에 24개의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가 의료공제조합의 지부가 되어 조합원을 관리하고 회비를 수납한다. 현재 의료공제가입 회원은 5,6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네팔, 필리핀, 몽골, 나이지리아 등 사회보장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 출신의 노동자들은 매달 회비를 내는 보험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2-3개월 혹은 5-6개월)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은 어디 또 특혜는 외국인 노동자를 진료하는 병



원은 협력병원으로 지정되고, 현재 서울대학병원 등 460여 개의 협력병원과 103개의 협력 약국에서 의료보험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조합의 회원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무료진료소,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2.3차 의료기관으로 의료전달 체계를 갖추어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공제회원으로 가입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의료공제조합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청구된 진료비 전액을 외국인 노동자가 의료기관에 수납하고, 수납 영수증을 의료공제조합 지부에 제출하면 진료비의 50%를 환불해 준다. 의료공제조합에서 환불하는 의료 공제비는 최고 400만원으로 규정한다. 최고 400만원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조합 기금의 안정성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특혜를 받았던 사례

하나, 우리 살롬의 집에서도 외국인 의료공제조합의 혜택을 받았던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필리핀 부부의 사랑의 결정체인 신생아 탄생. 정상적인 출산이었으면 축복 또 축복이었을 것... 세상 구경이 그리도 하고 싶었는지 그만 9개월 만에 세상의 환한 빛을 보게 되었다. 그 아이는 엄마의 뱃속이 더 좋았으련만... 기숙사 화재로 인하여 아기의 엄마가 너무도 놀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신할미에게 등 떠밀려 세상에 나오게 되어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야 했다. 1개월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해도 좋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걱정은

이제부터였다. 1개월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각종 검사에 주사에 병원비를 천만원 가량 내야 퇴원을 할 수 있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자기와 똑 같은 처지의 외국인 노동자라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 어렵지 않았고 세상의 훈훈한 인정은 식지 않았다. 의료공제회에서 최고 지원금 400만원과 종교 단체의 물품 및 의류 등 도움을 주셔서 바자회를 개최하였고 각국의 노동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도나도 주머니 돈을 털어 물품을 구입하고 자원봉사도 해주고 해서 수익금을 얻을 수 있었고 부모의 몫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의료공제회가 결성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 지금 생각해 보니 아찔 또 아찔. 그 아이는 지금은 건강해 져서 부모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리무리 잘 자라고 있습니다.

두 을, 방글라데시 출신 J라는 친구는 머리가 어지럽고 힘이 없고 구토증세 때문에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얼굴이며 입술이며 손바닥에 핏기가 전혀 없어 금방 쓰러질 것 같고 환자라는 것을 첫눈에 인식할 수 있었다. 친구를 데리고 신부님을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서툰 말로 “신부님 나 많이 아파 어떻게 나 살려줘” 하고 애원하던 방글라 친구 J는 구리 한양대 병원과 인천사랑병원에서 백혈병인지도 모른다며 피검사에 CT촬영, MRI 검사에 안 해본 검사가 없고 3주일 이상 입원하여 안정을 취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백혈병 검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선 검사용 시약을 수입해 와야 하는데 지금은 약 자체가 수입이 안 되고

그래서 각 병원마다 의뢰를 해 보았지만 시약이 없으니 잠시 보유하고 약 수입이 되면 그때 검사하기로 약속하고 약 먹고 편히 쉬라”고 하셨다. 계속 약을 먹으니 몸은 조금 좋아졌지만 한국에 있어야 일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 다니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J는 본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결국 귀향을 결정하였다. 타국에 와서 몸 아프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이 제일 먼저 보고 싶다고 한다. 병원에 갈 때마다 같이 다니던 그의 친구를 가끔 만나면 안부를 물어보게 된다. 고향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형하고 장사도 하고 있다고...

건강하다니 축하해주고 싶고 J는 아마도 향수병이었나 봐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 치료하여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이다. 신체적 건강이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대 받았지만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최소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이고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일하고 대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살롬의 집은 민간단체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살롬**

살롬의 집,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다른 문화와의 만남

자원봉사자/
정 신 영

벌써 가을이다. 이제 곧 겨울이 오겠지.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하지만 그 매년 찾아오는 가을과 겨울의 느낌이 조금씩은 다르듯, 신은 우리 인간들을 각기 조금씩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또, 그 자연의 섭리처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모여 각기 다른 문화를 이루며 살아왔다. 그렇긴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삶의 이상이 변하듯 때에 따라선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기만의 균락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발을 내딛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찌면 우리가 자라면 사회에 나가듯 그들에게겐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인지도 모르겠다.

살롬의 집,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국에서 어찌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 불법체류자들이 대부분인 그들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아니 어찌면 그 이상의, 그저 한 명 한 명의 인간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사실 처음엔 조금 두렵긴 했

었다. 주변에선 그들의 안 좋은 면보다는 어려움을 더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준비가 안되어 있던 내 자신에 대한 불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단지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사상이 조금 다를 뿐,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다.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오는 어리석은 고민에 잠시 휩싸였던 것이다. 처음에 홈 비지팅(방문 프로그램)을 갔던 일이 생각난다. 어느 나라였는지는 경황이 없어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곳의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곳에서 그들이 늘 먹던 그대로,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그들도 그들의 양식을 먹고, 그저 비슷한 삶일 뿐이었다. 그냥 우리네 사는 느낌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우리가 방문한 것 만으로도 얼굴에 웃음을 띄어 주었는데, 나는 그저 어찌할 바를 몰라 내내 말없이 얼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여러 번 오신 봉사자 분들을 보면서 이런 일에도 적잖이 용기가 필요하겠거니 싶었다.

살롬의 집에 드나드는 외국인의 수도 그들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숫자도 적지 않았지만, 처음엔 그저 다른 외국인들도, 다른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정이나 사는 모습도 비슷하겠거니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고 했다. 하루에 12시간이 넘도록 일하고도 그 노동에 대한 대가는 터무니 없이 적을 뿐 아니라, 병이 들어도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예전에 TV나 신문 등에서도 보았지만, 일을 하다가 당하게 되는 사고에도 보상을 해 주는 그야말로 마음씨 좋은(?) 업주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나마 그렇게 고되게 일하면서 벌어들인 급료를 떼이는 일도 다반사라고 들었다. 이런 일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단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 해야 할 뿐이라는 사실에 더욱 더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홈 비지팅을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들이 처음에 일하게 해 달라고 한 업주를 찾아 갔을 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했다는 것이다. 인간 이하의 취급이었던 것이다.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이 아닐 수 없었다. 문득 지난 여름 일본에서 오신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신부님 말씀으로는 일본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그곳에는 한국인도 대다수라고 하셨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곳에서 그렇게 대우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결코 남의 일처럼 만은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업주에 의해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더불어, 우리의 노동자들도 선진국 어느 나라인가에서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에 더 신의를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샬롬의 집에 나가면서 느낀 점은, 인간으로써의 우정이랄까? 그런 종교와 문화를 뛰어넘는 인간 본연의 정 같은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도 들이고, 샬롬의 집 자체는 성공회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그곳으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기독교나 불교 등, 여러 종교를 가진 분들이다. 물론 사는 곳도, 생활환경도 종교도 다 다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한 가족 같으니 요즘처럼 자기 종교에 대한 독선과 아집이 난무하는 시대에 적잖이 교훈적인 일도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걸 모습만 보고 그들을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되듯이 그들을 판단할 때에도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까 말했듯 정말 악덕 업주들도 있겠지만, 그에 반해 개중에는 정말 마음씨 좋은 업주도 있다고 들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말 힘없는 가족들을 대신해, 혹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한국이라는 먼 이국 땅까지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나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기로 했다. 처음부터 친구라고 정해져서 친구가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역시 처음부터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해야 한다고 정해져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일하는 노동자는 없을 것이다. 강제 출국장에서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해 달라는 애원이 그저 단순한 울부짖음은 아닐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법적인 구속이나 속박에서, 수시로 나오는 단속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만 대해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으로 그들이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고, 점점 더 좁아지는 세계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고 어려운 것에 더 관심을 쏟는 것.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연의 인지상정(人之常情)인 것이다. 단지 그것이 내가 뭔가 해준다는 느낌 만으로가 아니라 내가 원래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느끼며...

지금까지의 사정과 모습이 어찌 되었건 그건 우리가 앞으로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는 내 입장으로써도, 전에 갔던 홈 비지팅에서 외국인 노동자, 그들이 속한 나라의 음악을 듣고, 또 우리 노래를 들려주고,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음지었던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겨울이 있으면 좋겠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친구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 / 구 은 경

구 은경양은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석사2학기생이며 두레교회 교인이다.

살롬의 집에 처음 방문한 날은 약간 흐리긴 했지만 따뜻한 봄기운이 한창이었을 때였다. 처음 방문하자마자 안내 받아 간 곳은 가구단지 안에 있는 조그마한 분교 운동장...

수십 명의 외국인들과 눈에 딱 튀는 덩치 큰 신부님이 축구를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열을 올리고 있었다. “쇼 생크의 탈출”에서나 볼 수 있는 남자들만의 이상한 세계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었다. 우중충한 날씨에 시커먼 남자들끼리 울긋불긋 짧은 옷차림을 하고 열광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난 일종의 미묘한 쾌감을 느꼈다.

아무도 나를 눈 여겨 보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만인의 눈총을 받고 있다는 착각(그야말로 일방적인 착각이었다)에 잠시 빠졌다. 수 많은 외국인들을 한번에 접하게 된 것이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신기하였고 금새 외국인들의 신선한 향취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흥분과 기대감이 나를 오래도록 흐뭇하게 만들었다.

“또 가고 싶다~” 첫날 집으로 돌아온 뒤에 저절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살롬의 집

과의 만남이 시작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난 외국인들이 그냥 좋다. 반짝이는 눈빛이 따스하게 느껴진다.

참으로 인간적이고 순수한 마음이 눈가에 깃들여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간절함이 고이 배어있다.

가족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낮은 땅에서의 불안,

내색을 하려하지 않아도 이들의 눈빛을 보면 여러 감정들을 조금은 읽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위해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자원봉사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여기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 자원봉사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에 이르렀다. 학교수업에, 과(科)실 일에, 교회봉사에 정신 없는 하루하

루를 보내면서 토요일에 잠깐 시간을 내어 아무런 준비 없이 살롬 하우스에 방문한 것이 사실이다. 단지 외국인들이 좋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시작한 자원 봉사라지만 말 그대로 난 무늬만 자원 봉사자였다. 내용 없는 형식만 채우기에 급급한 부실한 자원봉사자...

이러한 자성의 소리를 부담으로 느끼며 지금 나는 스스로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 자원봉사자라는 자격을 운운하기에도 부족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곳에 와서 지내는 시간이 즐겁고 귀하기만 하다.

이곳에 와서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이 정호 신부님과 여러 스텝들을 통해 경계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태도를 배웠다. 신부님과 스텝들이 유머와 여유를 갖고 외국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닮으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험한 직종에 일을 하게 된 나라밖과 나라안의 현실에 대하여 조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박하고 거친 마음이 곳곳에 배어있는 가슴 아픈 현장을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 간접경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살롬의 집에 오면서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더욱 열렸으면 하는 소망도 생겼다.

내가 살롬의 집에 자원봉사자로 방문을 하면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한가지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

고 싶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볼까?

나는 이곳에 있는 외국인들이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 마음깊이 갖고 있는 설움과 한이 베인 그들의 외침을 듣고 싶다. 그리고 내가 들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고이 간직하였다가 주변 세상에 알리고 싶다. 이들의 입을 대신하여 나의 작은 목소리를 한껏 높여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싶다. 이들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이들을 도와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 난지 오래이다. 현재 나는 단지 이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주어진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다. 현실이 변하는 것이 오래 걸린다면 현실을 이겨내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함께 키워나가고 싶다.

“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쪽으로, 북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백색인, 흑색인, 황색인들에게 우리는 가야 해.”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이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마다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작은 진동이 일어나고는 했었다. 그리고 훗날에 어느 나라이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찾아가리라는 굳은 결심을 한 것도 기억한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내가 찾아가고자 한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서 살고 있다. 내가 가야 하는데 이들을 스스로가 자기발로 이 나

라에 찾아왔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우리 집 옆 동네로... 곁에서 이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의 고국에 간 것보다 이들이 여기에서 나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만나서 놀았었는데... 토요일만 되면 그 친구들이 보고싶어요“
최근에 만난 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 말이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친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 내가 이들과 친구가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나는 나쁜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살롬 하우스에 와서 외국인들과 친구가 되어주기를 권하고 싶다. 찾아가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한다면 직접 이 땅에 방문한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닐까?

한국에 찾아온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고 단련된 정신력과 기술을 갖고 고국에 돌아가 자신의 꿈을 꼭 실현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한국을 기억할 때 따뜻한 친구 한명이 같이 떠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 열심히 일하여 잘 살게 되었을 때 그 나라에 찾아오는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이런 의미에서 살롬 하우스는 평화를 만들고 따뜻한 우정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공장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살롬 하우스에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과 스텝들과 그리고 앞으로 방문할 모든 손님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 서로가 서로에게 peace maker가 되길 소망한다.

“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 아니, 바빠!”

“ 뭐 하는데?”

“ 자원봉사 하러 가”

“ 자원 봉사? 가서 뭐 하는데?”

“ 음...저기.... 뭐... 에이, 그냥 외국인들 집에 방문해서 수다 떨다 와..”

“ 응?...”

얼마 전에 친구와 전화로 통화한 내용이다. 6개월동안 자원봉사자로 있으면서 한 일이라곤 수다 떤 일이 전부라니... 그래도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살롬 하우스에 계속 올 것이다. 난 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친구가 되기 위해 대화 이상의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

“ 나처럼 단순하고도 중요한 일하는 자원봉사자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살롬의 집 소식

3월1일

살롬의 집 실무자 교체
서 선영, 고 순덕 두 실무자가 개인 사정으로 살롬의 집을 떠나게 되어 새로운 실무자(의료보험 : 유 영애, 산재및 상담 : 김 형배)로 교체되었다.

3월8일

미숙아를 출산한 필리핀 출신에 밀리타, 한양대 구리병원에 입원 시킴.

4월11일

아시아 지역 NGO, 외국인노동자 활동가 교육
아시아 NGO 외국인노동자 활동가교육이 4월11일부터 7월4일까지 12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공회대학교 새 천년 기념관에서 있었다.

4월

필리핀기숙사 화재

4월16일

필리핀 여성 지나 미숙아 출생-강동성심병원

5월13일

필리핀 공동체 돕기 바자회



미숙아를 출산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두 필리핀 여성 근로자를 돕기 위한 바자회가 살롬의 집에서 열렸다.

5월17일

자원 봉사자 교육
5월 17일 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에 살롬의 집에서 있었다.

- 강사 : 이 정호신부님
-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부터
- 장소 : 살롬의 집

5월15일

미숙아들 퇴원, 병원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세상의 따뜻한 사랑과 신부님의 수고로 무사히 퇴원.

5월 22일 자히루.니폰 부산에서 밀항하다가 잡혔음 결국엔 강제 출국당했음.

5월24일

미얀마 공동체 구성
80여명의 참석으로 화기에애한 자리였음.

6월2일

KBS 취재파일에서 살롬의 집 한글반 교육 촬영



6월3일

방글라데시 공동체 축구대회
방글라데시 공동체 BPS에서 주최한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방글라데시 팀이 살롬의 집 팀을 2대1로 누르고 승리



6월15일

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집중단속

6월29일

KBS "당신이 있어 좋은 세상"에 이 정호 신부님 출연 하셔서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살롬의 집의 활동 등을 소개 하셨습니다.



8월 12일

재미교포 12명 살롬의 집 방문
살롬의 집에서 외국인들에게 하고 있는 교육과 외국인들의 생활과 환경에 대해서...

8월16일
 평화문 집회 참석- 외국인 인권
 보호주장

8월 19일
 명동 집회 참석



8월30일
 미얀마 출신 신유와 조모 에이
 즈 보균자로 강제 추방

9월9일
**제2회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남양주시청 대강당에서 외국인
 들을 위한 음악회 개최하였다.
 남양주시합창단, 사물놀이, 루
 디아 중창단등 다양한 프로그램
 과 공동체 대표로 펠리핀합창단
 과 방글라데시 친구들의 노래
 등 즐거운 하루...



9월 11일
 방글라데시 근로자 공장에서 일
 하다 폭행 당함-원 병원에서 11
 바늘이나 케 메는 치료를 받음.

9월21일
의료백서 출판기념회
 의료공제회 설립2주년을 즈음
 하여 의료공제조합사무실에서
 의료백서 출판회 개최

9월23일
 성공회대학교에선 성소주일 행
 사가 있었다. 교회 교인들과 살
 롬의 집 식구들과 각국 출신
 100여명 정도가 서로 어울려 바
 자회 구경. 방글라데시 공동체
 에서는 방글라데시 민속 음식을
 판매하여 수입금 전액을 봉헌하
 였다.



9월29일
외국인노동자 위한 선물 전달
 남양주 시장님께서 살롬의 집을
 방문하셔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게 용기와 격려를 해 주시며 송
 편과 막걸리를 추석 선물로 주
 셧다.



9월 22일, 30일
2001 외국인노동자 축구 한마당
2001 외국인 노동자 축구 한 마
당이 특설 체육공원에서 있었다.
 외로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날 축
 구로써 마음의 벽을 넘어 서로
 하나가 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우승은 나이지리아팀에게로 돌
 아갔다.

10월6일
성공회대에서 PC 10대 기증

살롬의 집에 외국인들에게 참으
 로 좋은 일이 있었다.
 그 동안 컴퓨터의 고장으로 인
 터넷이 잘 되지않았는데 이제는
 성공회대학교에서 컴퓨터 10대
 를 후원해 주셔서 예전보다 좋
 은 컴퓨터로 넓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PC방에 온 것처럼 할 수
 있어 좋다.

10월21일



도자기 엑스포 관람
 광주 이천 여주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을 관람하고 왔다. 남양
 주시청에서 버스4대와 입장료
 를 무료로 지원해 주셔서 약130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
 편히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

살롬의 집이 위치한 남양주 지역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노동자의 수는 1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개 별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그런 그들이 왜 이곳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일은 그들 나라의 사정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방

글라데시는 인도반도의 북동부에 있는 나라이다. 국토면적은 147,570km² 이고 인구는 1억 2711만 8000명이다. 정식명칭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다. 수도는 다카이며, 공용어는 벵갈어를 사용하고 있다. 남동쪽은 미얀마와 접하고, 남쪽은 벵골만에 면한다. 방글라데시란 '벵골의 나라'라는 뜻이다.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에서 독립한 후로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의 동 파키스탄주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1971년 3월 26일 파키스탄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 방글라데시의 자연

방글라데시는 북회귀선이 국토의 중앙을 지나는 아열대이며, 브라마푸트라강(江)의 하류에 있다. 두 강이 형성하는 거대한

Bangladesh



델타 지대가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부의 치타공 구릉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탄한 저습지대이다. 연간 강수량은 1,500~2,500mm에 이르는 지대가 대부분이며,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가 우기(雨期)인데, 우기에는 전국토의 5분의 2가 침수된다. 건기(乾期)는 11월부터 2월까지이다. 건기가 끝날 무렵에는 회오리바람이 따르는 사이클론(벵골灣 태풍)이 종종 내습하는데, 피해가 심각하다. 1991년 4월 내습한 사이클론으로 13만 8천만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 방글라데시의 주민

방글라데시 인구의 90% 이상이 몽골-드라비다계(系)의 벵골족이고, 그 밖에 치타공 지방에는 아라킨, 차크마, 바루아 등의 버마계 종족과 인도의 비하르 지방에서 이주해 온 비하르

족등이 있다. 국어는 벵골어이며, 종교는 이슬람 교도 87%, 힌두교도 12%, 기타 불교도, 그리스도교로 되어 있다.

□ 방글라데시의 역사

기원전 1200년 경 이슬람인들은 벵갈(Bengal) 지역에 있는 힌두교와 불교 왕국을 침략하여 왕권을 빼앗았다. 그로 인하여 벵갈 동부의 대다수 주민을 이슬람교도로 개종 시켰으며 서부 벵갈 지역에도 소수 이슬람 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로부터 이슬람교는 이 지역의 역사와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5세기 후반 벵갈 지역에 도착한 첫 유럽인은 포르투갈 상인과 선교사들이었다. 뒤를 이어 네델란드, 프랑스, 동인도회사가 잇달아 벵갈에 나타났다. 18, 19세기 동안 영국은 점차 인도의 캘커타에서

부터 벵갈까지 그들의 상업적, 정치적 세력을 미쳤다. 19세기 후반 영국 지배하의 인도에는 애국 운동이 펼쳐졌으나 이로 인하여 힌두교와 이슬람교인 사이에 적대관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양 진영에서는 각각 자신들을 대표하는 당을 만들고 영국 왕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이슬람 교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법을 찾는 데는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슬람인들의 당(黨)인 **All-India Muslim League** 는 1935년 인도에서 첫 선거에 패배한 후 1940년 이슬람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을 독립주로 선언하였다. 그 후 이로 인하여 캘커타 등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947년 인도가 자치권을 회복하고 벵갈 지역을 종교에 의해 이슬람 교인 의 동파키스탄과 힌두교인 의 서파키스탄으로 분리하였다.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내에서 벵갈의 무지브(Mujib)는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Awami League(AL)** 당(黨)을 만들었다. 그 후 무지브는 AL의 대표로서 벵갈 자치운동을 벌렸다. 1970년대 무지브는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체포되고 그의 AL 당은 활동이 금지되었다. 1971년 3월 26일 파키스탄군의 유혈 진압에 맞서 벵갈 애국주의자들은 독립된 방글라데시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 후 파키스탄군과 벵갈 자유투사들간의 전투가 가열되자 1,000만명에 이르는 힌두교를 믿는 벵갈인들이 인도의 아쌈,

서벵갈 등지로 피신하였다. 결국 1971년 12월 16일 파키스탄 군대는 항복하고 벵갈 국가라는 뜻의 ‘방글라데시’가 탄생하였다. 1972년 헌법에 의해 방글라데시는 의회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 방글라데시의 정치

방글라데시의 독립운동을 이끌어온 아와미연맹 (**Awami League**)이 독립 후에도 정권을 장악하여 연맹 총재 무지브라만이 총리가 되었다. 1972년 4월부터 제헌의회가 개최되어 11월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비종교주의를 내세웠다. 1975년 1월 헌법을 개정하고 라만이 그 후 대통령이 되어 전행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식량부족으로 인한 경제혼란, 인도에 대한 종속관계, 정치지도자의 부패 등을 배경으로 그 해 8월 국군 청년장교의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라만 대통령은 사살되고, 아와미연맹의 많은 지도자들이 체포 처형되었다. 또 그 해 11월 두 차례의 군부 쿠데타를 거쳐 육군 참모장 지아우르 라만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1978년 6월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라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1979년 2월의 총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족주의당 (**BNP**)이 압승하였다.

그 후 1981년 5월 다시 쿠데타가 발생하여 쿠데타 자체는 군부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로 끝났으나, 그 불발 쿠데타로 인해서 라만 대통령이 살해되었다. 1981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그 동안 대통령서리직을 맡아 온 A.

사타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부조직은 대통령 중심제이며, 의회는 임기 5년의 단원제이다. 전체 330석으로 지역구 300석, 여성의석 30석으로 이루어진다.

1983년 11월 정치활동 자유화이후 수십 개의 정당이 생겼다. 주요 정당으로는 1996년 6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당이 된 방글라데시 아와미연맹,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제2야당이 된 국민당이 있고, 이슬람당, 공산당, 노동자농민당 등과 같은 많은 군소정당이 있다. 외교면에서는 본래 독립의 산과역을 한 인도, 소련과 관계가 밀접하였으나, 지아우르 라만 정권 때부터 파키스탄과의 관계도 정상화하고, 중국과도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한편 독립 당시의 사회주의 노선을 수정하여 경제의 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갠지스강의 수리권(水利權) 문제 및 차르 지역의 영유권문제 등을 둘러싸고 인도와 냉각상태를 보였다. 1990년 9월부터 에르샤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세력과 학생의 시위가 빈발하여 12월 6일 사임하였으며, 1991년 2월 실시된 총선거 결과 민족주의당이 제1당의 자리를 확보하였다. 3월 20일 할레다 지아 민족주의당 총재가 방글라데시의 최초의 여성 총리에 취임하였다. 1991년 6월 집권당 민족주의당은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 방글라데시의 경제

방글라데시는 농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1966)이다. 벼농사가 중심이며, 작부면적은 전경지의 80%에 이른다. 그러나 식량자급은 불가능하며, 해마다 100만톤 가까운 식량을 수입 방출하고 있다. 벼농사는 1년에 3회 실시되며, 우기작(雨期作:7~11월)이 전체 수확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주트[黃麻] 재배는 19세기 중엽부터 세계 굴지의 산지가 되었으며, 지금도 주트 원피(原皮), 주트 제품의 생산은 세계 전체의 약 40%, 이 나라 수출총액의 70%를 차지하고, 공업도 주트가공이 가장 활발하다. 그 밖의 공업으로는 천연가스가 산출되기 때문에 화학비료공업이 활발하다.

또한 연안 수산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 동파키스탄 시대에는 서파키스탄 자본이 공업의 대부분을 지배하였으나, 독립 후에는 그것을 국유화하여 국영기업으로서 운영하고 있다. 수출품으로는 주트 외에 홍차, 피혁 등이 있다. 최근에는 중동에서 취업이 증가하여 그 송금도 중요한 외화수입이 되고 있다. 외국의 원조가 정부 재정지출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인구증가율과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 잦은 홍수로 경제생활이 궁핍한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다.

□ 방글라데시의 사회

1996년 현재 방글라데시 주민의 83%가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도처에 이슬람 사원이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또 벼농사 중심의 농경생활을 하는 데다가 지형적으로 대부분이 삼각주 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은 물과 관계가 깊다. 우기(雨期)에는 집 주위의 땅을 돌구어 침수를 막고, 배가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된다. 문맹률은 1996년 현재 51%로 경제발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수파인 힌두교도는 독립 후에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 방글라데시의 문화

방글라데시의 문화는 서벵갈의 문화와 비슷하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방글라데시는 85%가 이슬람교도이다. 방글라데시인들은 시(詩)를 좋아한다. 시에 대해 민감하며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카디 나즈들은 방글라데시의 국민시인이다. 방글라데시인 인 인도의 타고르는 1913년 노벨상을 받았다.

비싼 장식용 직물인 장다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수놓은 옷감인 나시카샤는 도시와 농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자트라라 알려진 민속 극장은 시골 축제

에서 열리고 전통적인 음악은 인도 음악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방글라데시는 남북동시 수교국이다. 한국은 1972년 5월 18일 방글라데시를 정식 승인하였으며, 1973년 6월 29일에 통상협정을 체결하였다. 1973년 12월에는 대사관 설치 등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1974년 10월 무역관이 설치되었다. 1978년 9월에 방글라데시 공업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상공장관회담을 가졌으며, 양국간 외교의 증진과 경제기술협력의 강화를 위해 민간 차원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1979년 6월 14일에는 한국-방글라데시 문화협정이 양국간에 서명·발효하였다. 1980년 5월 15일에는 한국의 농업진흥공사가 방글라데시 수자원 개발청에서 실시하는 파브나 지구 1단계 사업의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1983년 사증면제 협정과 이종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85년 투자보장 협정이 체결되었다. 1993년 경제기술협력협정과 1995년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1985년 6월 에르샤드 대통령이 방한하였다. 1998년 현재 대한 수입은 5억 100만달러이고, 수출은 970만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봉제제품, 황마, 어패류 등이며 수입품은 섬유, 봉제관련 원,부자재(수입액의 40%), 철강, 플라스틱 등이다.

즉각사면

외국인노동자의 지위보장

외국인노동자 합법화는 기업주들의 요청이다!

또한, 불법체류자 사면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정부와 관계기관은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은 고사하고 벌금까지 부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국을 강제집행하고 있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중소 기업주들이 인력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취업자들을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위한 생산활동이 불법의 토대 위에 구축되고 있으며, 불법이라는 이유로 사업주들이나 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단속과 과도한 벌금에 대해 항상 마음을 졸이며 불안한 처지에 떨고 있다. 합법화가 되면 마음을 졸이지 않고 마음 놓고 고용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와 인격까지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벌금제도와 강제출국 조치는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법적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임금체불과 산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통을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강제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윤리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현황

남양주 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 1800명, 필리핀 1100명, 네팔,미얀마등 아시아계 700여명과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 출신 1400여명 등 약 5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5천 여명의 노동자중

- ▶ 100명 중 1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 ▶ 50명중 1명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 20명중 1명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 12명중 1명이 인권사각지대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최저 생계를 도울 수 있습니다.
- 샬롬의 집의 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질병 등 긴급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성공회 서울교구 남양주교회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후원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33-9
전화 : 031-593-0193/4(후원회) 031-594-5821(사무국)
팩스 : 031-595-9775
전자메일:shalom@shalomhouse.or.kr
웹사이트:migrant.shalomhouse.or.kr

후원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할 분은;
상당.한글.컴퓨터.소식지 편집 등
샬롬의 집의 모든 프로그램에
자원활동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으로 도움 주실 분은;
정기적 또는 일시불로 일정액을 후원 해
주십시오. 적은 액수라도 자동이체를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 정산 시 전액 손비처리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샬롬의 집 사무국
(031-594-5821) 이나 후원회 (031-
593-0193/4) 로 문의 하시거나 웹사이트
를 방문하십시오.

또, 샬롬의 집 웹사이트 (migrant.
shalomhouse.or.kr) 를 방문하시어 후원
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성공회 샬롬의 집

국민 : 813-01-0236-464
조흥 : 304-01-146400
한빛 : 812-004996-01-101
농협 : 056-01-116211